A Daily Bread

בייה

날짜: 5786 년, 8 월 9 일 (2025 년 10 월 31 일)

토라 몫: 나아가라

주제: 아브라함의 겸손

창세기 14 장 3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소금 바다에 모였더라.” 싯딤 골짜기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싯딤 골짜기, 샤웨 골짜기, 그리고 숙곳 골짜기입니다.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싯딤 골짜기’로 불린 것은 큰 나무들이 자라났고, 이 나무들로 도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곳이 지속적으로 쟁기로 갈아엎어진 결과, 여러 고랑이 생기고 뒤집힌 흙더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갈이질 (hoeing)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샤웨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이었으며,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께서 그에게 네 명의 강력한 왕들을 이기는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이후, 전쟁의 생존자들이 이 골짜기에 모여 화해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샤웨 골짜기 (합의의 골짜기)'는 이 합의로 인해 “왕의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백향목을 베어 큰 단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그 위에 올려 세웠으며, 그 앞에서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야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엘로힘의 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강한 자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된 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참된 엘로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왕과 통치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한 인물로 찬양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책임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백성에 대한 실제적인 돌봄의 임무는 자신 아래의 통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왕이자 통치자로 칭송되었다는 것은, 그가 왕의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필요에 직접 응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그는 ‘강한 자’로도 칭송받았는데, 이는 그가 신적인 예언의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이거나, 엘로힘께서 그를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 앞에서 위대함과 명예를 주셨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으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엘로힘께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유일한 위대함은 엘로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으며, 그마저도 자신의 영적 성취는 모두 엘로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엘로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와 축복의 능력을 주셨고, 그가 이 능력을 사용하여 소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조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아뢰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니이다” (창세기 18:27).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높은 겸손의 경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이 ‘숙곳 골짜기’라 불린 것은 나무들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랍비 탄후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골짜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풍성한 잎을 지니고 있어 골짜기를 그늘로 덮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싯딤 골짜기'를 ‘소금 바다’로 지칭하고 있다. 비록 그 골짜기는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싯딤 골짜기에는 단지 소금물이 흐르는 작은 수로만 있었으나, 이후 인근 개울들이 범람하면서 골짜기를 범람시켰고, 결국 하나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위 속에서 시냇물을 터뜨리셨도다” (욥 28:10)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샬롬